



새만금개발청, 고문변호사 신규 위촉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은 고문변호사(법무법인 와이케이 강경훈 변호사)를 새롭게 위촉 3일 위촉식을 가졌다. 새만금개발청 고문변호사는 새만금 사업 추진에 필요한 법률적 자문, 법령 해석 및 소송사건·행정심판 자문·대리 등의 역할을 한다. 현재 5명의 고문변호사가 위촉되어 새만금사업 각 분야에 필요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최근 10.22일이 넘는 투자유치 성과에 힘입어 새만금 국가산단에 입주한 기업의 수가 많이 증가했고, 관광·레저 사업의 법률 자문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고문변호사 추가 위촉이 필요한 상황이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다양한 기업 친화적 정책으로 새만금은 현 정부 들어 유례없는 투자유치 성과를 달성했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호원대 씨름부 춘천대회서 동메달 획득

호원대학교 씨름부는 '제10회 춘천소양강배 전국장사씨름대회'에서 대학부 개인전 동메달을 획득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지난 1~2일 함평대학교 레크리에이션센터에서 열린 전국장사씨름대회에서 청장급(88kg) 체급으로 출전한 손용근(스포츠무도학과 1년) 선수가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현형준 감독(스포츠무도학과 교수)은 "손용근 선수가 대회 입학 후 첫 입상"이라며 "앞으로 부상 없이 관리하면 강래가 촉망되는 선수"라고 격려했다. 한편, 호원대 씨름부는 2018년 창단 후 23명(남 22명, 여 1명)의 선수를 육성하고 있다. /정은성 기자



남원시 운봉읍, 어르신 장수사진 촬영

남원시 운봉읍(읍장 이은주)은 지난 2일, 비래봉 행복센터에서 관내 어르신 20명을 대상으로 장수사진을 촬영했다. 이번 촬영은 고령화 되어가는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고 읍실정에 맞춰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읍내 사진관 부재로 사진 촬영이 힘들었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사진 촬영을 지원해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데 의의를 두고 있다. 이은주 운봉읍장은 "어르신들이 처음에는 카메라 앞에서 어색해하시는 듯하면서도 이내 밝게 웃으시는 모습을 보며 시책 추진의 보람을 느꼈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 도통초 학생, 이웃돕기 성금 100만원 기부

남원시는 3일, 도통초(1학년) 윤하준 어린이와 부모님이 시청을 찾아 이웃돕기 성금 1백만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윤 군은 어렸을 때 아랑고고장구를 치는 할머니를 보며 배우기 시작해 흥미를 붙여 벌써 7개월째 접어들었으며, 제4회 춘향제 등 여러 행사에 참여하며 이들에게 즐거움과 행복을 전하고 있다. 이번 성금은 할머니를 따라 공연에 참여하면서 어른들이 주시는 용돈을 모아 어디에 사용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좋은 곳에 사용하고자 기부를 결정하게 되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북경제 활성화 위해 힘 모으자’

여성경제인협회 전북 창립 25주년 기념식... 도내 모범기업인 21명 도지사 표창 등 수여

전북 여성경제인들이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북지회 창립 25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전북특별자치도는 3일 그랜드힐스턴호텔에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북지회 창립 25주년 기념식이 개최됐다고 밝혔다.



장을 도모하고 여성기업의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1999년 7월 창립하여 올해로 창립 25주년을 맞이했다.

한편, 전북지회는 그간 도내 여성기업 발전과 역량 강화를 위해 여성기업 주간 행사 리더십스쿨 지원 등 도비 약 4,400만원을 투입해 지원하고 있다. 이 밖에도 여성기업 제품 우선 구매와 판로 개척 등 지속적으로 여성기업 경쟁력 도모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우리나라 기업의 40% 이상이 여성기업이다"라며, "도내 여성경제인들이 전북경제를 일으켜 세우고 탄탄하게 다지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 함께 힘을 모으자"라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남원 도통동 지사시험, 착한가게 15호점 현판식

남원시 도통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동장 소신자, 민간 서덕교)는 지난 3일, 관내 최가네 부대찌개(대표 임종화)에 착한가게 15호점 현판을 전달했다. 착한가게는 매일 매출의 일정액 (월 30만원 이상)을 지역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나눔을 실천하는 가게로, 기부금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서덕교 위원장은 "동에 나눔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며, 많은 업체에서 나눔에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소신자 도통동장은 "착한가게를 통하여 동의 든든한 후원자로 동참해 주신 결정에 감사드리고, 후원자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도록 가장 필요한 곳부터 가치있게 나누어 가겠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국제화역량활동단, 해외서 전북대 우수성 알린다

전북대학교 국제화역량활동단이 7월부터 해외 곳곳에 파견돼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국에서 활동한 뒤 10일부터는 베트남 퀴논시로 이동해 15일 동안 다양한 활동을 펼친다. 이 기간 동안 태국 랑신타대학교에서 다양한 문화교류 활동을 펼치고, 싸리윗타야고등학교에서는 300여 명의 교사와 학생을 대상으로 유학생 유치에 대한 설명회도 갖는다.

이에 따르면 국제화역량활동단은 해외 학생들에게 K-문화와 교육 프로그래밍을 전파하고, 잠재적 유학생 대상 입시 홍보와 현지 지자체와의 협업 체계 구축, 현지 한인기업 방문 등의 다양한 활동을 수행함으로써 학생들을 글로벌 인재로 육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해 동계방학에 38명을 베트남 퀴논시에 파견하면서 시작했다. 당시 베트남 퀴논시의 레퀴동고등학교를 찾아 학생들이 준비한 교육 프로그램과 문화 교류 행사 등을 시행해 현지 학생들과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를 기반으로 지난 4월 베트남 퀴논시와 공식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기도 했다. 국립대학 중 현지 지자체와의 단독 MOU는 퀴논시와의 협약이 처음이다.

특히 올해는 활동의 지평이 더욱 넓어졌다. 노원업 학생부처장을 단장으로 총 44명의 단원이 3월부터 일주일 간 태

또한 베트남 퀴논시에서는 퀴논대학교와 세종아카데미, 레퀴동고등학교 등을 찾아 설명회 및 학생들과 함께하는 문화체험을 한다. 학생들은 현지 기업인 디비나아그리와 셀룰러스를 탐방, 해당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김중서 학생처장은 "국제화역량활동단은 우리 학생들에게 국제화 역량을 함양시키고, 전북대의 우수성을 해외에 널리 알려 잠재적 유학생을 조기에 확보하는 기회가 되고 있다"며 "올해도 활발한 활동을 통해 세계 속에 전북대의 우수성을 알리고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남원 대강면 지사시험, 착한가게 4·5호점 현판식

남원시 대강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김종국,권기환)는 지난 7월 3일, 삼진강매운탕(대표 김재선)과 방산나루민물장어(대표 양선애)에서 착한가게 4호점, 5호점 현판식을 개최했다. 김재선 대표는 "나 혼자서는 할 수 없다는 생각에 동참하게 되었다"며, 소독의 일정 부분을 지역사회에 환원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전했다. 권기환 위원장은 "착한가게에 기업이 동참하여 준 김재선시장님, 양선애 시장님께 감사드리고, 지사시험 위원들과 지역에 맞는 사업을 기획해 보다 살기 좋은 대강면 만들기에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이영 면 맞춤형복지팀장은 "변 복지허브화를 위해 지정 위탁신청서를 연중 수시로 받고 있다"며,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착한가게 사업에 동참하신 분들에게 감사의 전하며, "앞으로도 관내 취약계층의 복지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히며,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 주민복지과나 대강면(063-620-9396)으로 문의를 당부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농협 남원시지부-운봉농협, 농촌 왕진 버스 운영

농협 남원시지부(지부장 오영석)는 3일, 운봉농협(조합장 오영담)과 운봉읍 운봉농협 교육관에서 관내 농업인 200여 명을 대상으로 '농촌 왕진 버스'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왕진 버스는 농협중앙회와 농림축산식품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가 공동으로 실시하고 있는 농업인 실의 사업으로, 특히 접근성이 열악한 농촌지역에 의료지원, 검안·돌보기 지원 등 의료 및 복지 서비스를 윈스톱 무상 지원하는 등 더 나은 복지·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기전대, 네일 수원 대회 프로패셔널 부문 등 10종목 석권

전주기전대학 커풀링사업단(단장 조덕현)은 지난달 30일 수원메세에서 진행된 '제5회 NAILEXPO K-NAIL CONTEST' 네일 수원 대회에 참가해 프로패셔널 부문 'ART GRAND CHAMPION'을 포함해 모두 10종목을 수상했다고 3일 전했다.



이번 대회는 국내 네일산업 대표로 최근 트렌드를 주도하는 국내 최대 네일 엑스포, 보건복지부 공중위생교육 시행기관인 사단법인 대한네일미용사회에서 주최하고 경기도지회가 주관했다. 이번 경진대회에 참여한 뷰티디자인과 학생들은 △프로패셔널 부문 ART GRAND CHAMPION 조상미, △데칼아트 1위 송에스더, △데칼아트 2위 이슬 등 총 10종목에서 수상했다. 한편 뷰티디자인과 강세영 교수는 K-NAIL 저변확대와 인재양성 및 네일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우수교육자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조덕현 단장은 "학생들이 전공 실습을 바탕으로 국내 최

대 네일 엑스포에 참여해 좋은 성과를 내 기쁘다"며 "앞으로도 전주기전대하이 커풀링사업을 통해 최고의 네일아티스트 양성 대학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은성 기자



완주군 운주면 제5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촉식

완주군 운주면 제5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위촉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지난 2일 운주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공동위원장으로 이선재 위원을, 부위원장은 김순후, 남상기 위원, 총무는 임명숙 위원을 선출했다. 위촉식 이후에는 효율적인 협의체 운영을 위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세칙을 검토하고 수정했다. 5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삼계탕 밀키트, 추석맞이 송편, 밀반찬 김장 나눔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선재 공동위원장은 "운주면 구석구석을 살펴 어려운 이웃이 없도록 노력하고, 따뜻한 운주면 만들기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박정수 면장은 "항상 이웃을 위해 노력해주시는 운주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에게 감사드리고"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협력해 복지 증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완주=염재복기자